3/08/26-icsc core message 녹취록

말씀제목: 비밀 가진자
말씀구절: 고전4:1-5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1)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서론
1)복음을 가진 자는 힘이 있는 자이고 문제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고
2)언약이 비밀이면 많이 누리게될것이고 답은 언약이고 답이 답되게 하는게 기도이다.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 부터
3)개인적언약이 있다면 이것이 인생이 될것이다. 개인 비밀이 될것이다.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과 시대적인 인물들의 공통점이다.
4)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영적인 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이 기도의 세계이다. 이것을 항상 누리게 될것이다. 서밋타임. 이런 개인 기도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본론
1.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1)마땅히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 과거에는 하나님의 비밀, 일꾼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으나 훈련과 지속적인 복음고백을 통해서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것을 깨달았다. 이미 결론이 났다는것이다.
2)마음에 결론이 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것이다. 나는 전도자다. 이런 고백이 있는것과 없는것과 차이가 많이 날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영적상태가 아주 차이가 날것이다. 나는 전도자라는 고백이나 그 언약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가 일이 되어진다. 무슨 일이든지 일이되어지면 갈급해지고 누림이 없다는것이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이야.
3)나는 누구라고 하는 신분고백이다. 이때 권세가 온다. 그 이전에도 복음 알기만 해도 우리가 권세를 많이 누렸다. 그런데 진짜 신분이 회복되었을때 진짜 내속에서부터 내려오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권세는 모든영적문제치유의 근본이다. 이것 하나가지고 모든 영적문제 끝낸다. 사도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자이다. 누가 무슨소리를 해도 관계없다. 그 당시 사도바울도 사도권에 대하여 말이 많았다 너는 이단이고 괴수였잖아 가는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대들고,,, 필요없고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세상에 무슨소리를 해도 필요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자기 안에서 발견되어졌고 확인되어졌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표현이다.

4)세상을 정복한 사람의 자기 표현이다. - 사람이 마땅히... 인간이라면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것이다. 우리도 다 이리되기를 바란다. 잘 생각을 해보시라 누리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씩 되어지도록 쌓아주실것이다.

2.기도의 비밀
1)과거에 비하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바뀐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아직 기도에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듣는 메시지를 기준하면 아직도 24, 25, 00이 내것이 잘 안되어진다. 매일 매시나오는데 24안에 다 들어있는것이지만, 24로 하면 멀리 표현되어서 괜찮은데 매일 매시 하면 너무 구체적이라서 좀 그렇다.
2)또 하나 기도의 세계가 천사이다. 천군, 하나님의 사자. 이것이 우리 기도안에 들어와 누리는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게 잘 안된다. 옛날에는 완전 까막눈이었는데 그래도 복음안뒤에 사단 귀신 알게 되었다. 옛날에는 기도할때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고 그냥 주세요 라는것이었다. 누림, 영적전쟁이라는 개념이 기도속에 없었다. 일반 믿는 사람중에는 기도원파가 좀 들어있었기는 했다 좀 신비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다. 정확한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았기에 말로만 지나갔다. 그러나 지금 보면 천사보다는 사단에 대하여 더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노 아이디어인데, 지금은 정말로 분명하게 사단과 귀신은 컨셉이다. 또하나 기도의 비밀은
3)핍박, 위기가 기회라는 것이다. 아주 놀라운 기도의 권세이다. 언약의 권세이다. - 과거에는 이런것 해석할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하며 감사하다고 눈물흘리며 간증했던 시기였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것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라고하는 해석을 본 적이 없었다. 그정도가 아니고 요셉은 다 알고 갔다고 하니 놀라웠다. 이미 답을 가지고 간것이라고 해석한 사람은 없었다. 이런 것은 자기가 개인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면 말을 못하는것이다. 핍박이 기회이다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았다. 지금 우리는 거의 이런것을 인정을 한다 이유는 실제로 그리 되었으니까 왜 그랬을까 그게 본래 복음의 권세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핍박을 뒤집어서 축복으로 바꾸는것이다. 실수했는데 오히려 응답이 되어버린다. 옛날에는 그런것이 없었다. 더 중요한것은 내가 계속 기도안에서 누림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중하고 축복이다.
4)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비밀 결사대이다. 전에 이 말을 들을때 심하다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 그게 아니고 당연한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그림은 상상을 못했다. 옛날에는 믿고 하는것으로 끝이었다. 믿고 헌신하는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면 읽는것이다. 읽으면 은혜는 되더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앞에 언약을 잡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비밀이있는 영적인 비밀은 전에는 상상도 못했다. 이것이 복음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여하튼 복음안에 들어왔다면 세월이 갈수록 내려가는게 아니고 반드시 올라간다.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으려고 하는것이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려야 겠는데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3.누가? - 항상복음이다.
1)복음의 비밀을 깨달은자 가지고 있는 자, 복음의 비밀은 성경전체가 표현하고 있는게 복음의 비밀이다. 그 안에 있는 약속들 복음이면 된다는것이 비밀중에 하낟다 바울이 어느날 복음 받고 난뒤에 이런일이 일어난것이다. 바울이 복음 받기 이전에 상태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주 아마 개인적으로도 끔찍한 인간이 되었을것이다. 그율법에 잡혀서 아주

꼬장꼬장한 사람이 되었을것이다. 한번씩 이야기 하지만 나도 그랬을것이다. 나도 스스로 생각한다. 따지고 바르니 어떠니 이런것 말이다. 그것 가지고는 절대 진도 안나간다. 바르게 한다고 해서 진도가 나가냐 진도는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믿는자는 누림을 포함하는 자이다. 누림에 세계에 들어가면 진도가 나간다. 깨달음이 자꾸 발전되어지기에 그렇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자꾸 깊어진다. 그럼 기도도 자꾸 깊어진다 변화가 일어난다 영적인변화, 그러나 눈에 잘 안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2)이러다가 어느날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이 통하여 원니스를 이루는것도 또한 귀한 축복이다. 저는 복음 아니면 이런 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음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주실 이유가 없다. 그냥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는거가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 그런데 뭔가 비밀 세계로 인도하신것이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세계가 있다 이런것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가? 진짜 복음이 감사하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것이 중요하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한다 미국을 정복한다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한다. 나는 남미를 살릴거야라는 말역시 이해를 못한다.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하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 미국 복음화 미국 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것이다. 아침에는 우주를 정복하고, 아침마다 우주를 정복하고, 복음이니까, 우주보도 복음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 놀라운 축복을 받고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
3)이렇게 되면 기도가 최고가 되는것이다. 기도는 너무나 깊고 높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옛날에는 우리 생각에 기도를 계속 하면 체질이 될것이라고생각한다. 그게 아니다 내속에서 기도가 살아 있다는것이다. 그래서 24라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정상이고 반드시 되는것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것은
4)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고 가서 살리는것이다.

결론
1.언약을 누린 자는 말씀 성취를 누린다. - 어느날 언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되겠다. 그 증거가 구약성경에도 많이 써놓았다. 언약의 피, 희생제사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현장을 정복했다. 시대적인 사람들이 되고 작품을 남겼다. 그러면 우리는 희생제사만 하면 되는가? 아침에 말씀을 전파했는데 키포인트가 희생제사이다. 이 말씀을 잡고 지속을 하는것이다.

2.예배가 모든것이다. 출40:17 성막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것이 언제냐니까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했다. 올해 1월14일 저녁에 나왔다. 그 다음해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일년동안에 성막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라는것이 성막을 만들라는것이다. 거기서 예배하는것이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왜냐면 이것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것이다. 이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는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시려면 피가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이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는것이다. 다 알면서도 잘 안된다. 그런데 어느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들어면 하고 있는것이다. 지금은 짐승을 잡는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 고백하는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사이게 고백이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 이것을 계속 하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에 성막을 먼저 만들라는것이다. 하나님은 계획도 방향도 시간표도 있다. 여기에 대한 것, 근본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근원적으로 들어온것이다. 그 축복이 오늘 있기를 바란다.

3.언약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해방된다. 자꾸만 더 해방이 되어진다. 모든것으로 부터,,, 이 언약의 피가 증인의 내용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약속의 피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양육의 비밀이다. 제자를 만들라, 어떻게 키울까, 그 내용도 여기다. 약간 전도에 내용도 같이 들어가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바울의 고백이 우리 마음에 깊이 담기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필요없다 하나님과 내 사이면 끝이다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그리고 나는 하나님 정말로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내 마음에 진짜 고백을 하시라. 어느날 내게 들어와 내 말씀이 되면 힘을 받는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 정말 비밀을 가진자가 되기를 바란다.

기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 하늘의 양식이 되고 사단에 대한 무기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문제 정복의 비밀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